최차혜 원장이 예비신랑에게 보내는 감각 메세지

남자들이여! 내 인생에 새로운 날개를 달자!

최 차 혜 · 산부인과 원장, 전문의

결혼…

저해진 제각각의 입장에 따라 전혀 다른 느낌을 전해오는 단어, 결혼.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여러번 해도 I don't care! 하는 사람에겐 남의 나라 얘기. 살아봐라, 지긋지긋, 도시락 싸들고 말리겠다는 사람에겐 심각한 결혼 후유증 증세. 그러나 날짜 잡아 놓고 그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예비신랑, 신부들에게는 오색찬란 무지개 빛일 뿐.

자, 이제 결혼이라는 이 복합적이고도 추상적인 명사에 대해서 좀 더 현실적인 판단이 필요한 때이다.

더욱이 친애하는 남성동지 여러분, 결혼을 목전에 둔 예비신랑 여러분-변합시다. 바뀝시다. 달라집시다!

결혼에 대한 편견과 환상은 이제 접어두고, 사랑하는 내 색시와 함께 고민합시다. 이것이 진정한 남자로서, 믿음직한 신랑으로서의 의무와 도리!! 나 하나 믿고 시집오는 여자에 대한 『남자의 자존심』을 건 약속이 아닐까-

재미있는 러시아 속담

'싸움터에 나가기 전에 한 번 기도하라, 바다로 나간다면 두 번 기도하라, 그러나 결혼생활로 들어가기 전에는 세

번 기도하라.'

멀고도 험한 결혼생활의 터널 맨 앞줄에 서 있는 예비신랑들에게 꼭 필요한 이 말은 그만큼 신중하고 결코 쉽지 않음을 의미하는 말이지만 그렇다고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이제는 달랑 혼자가 아닌 그녀와 나, 이렇게 둘이니까.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 가야 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 결혼준비는 신부 혼자만의 몫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다.

결혼이라는 거창한 행사를 목전에 두고 있는 예비신랑, 신부들을 보면 대체로 희안한 공통점이 발견된다. 신부는 예단준비에서부터 살림살이 장만, 결혼식 당일을 위한 갖가지 준비에 이르기까지…. 이리뛰고, 저리뛰고, 돈문제 때문에 엄마 · 아빠랑 울고불고 싸우면서 한바탕 전쟁을 치른다.

한편 이즈음에 우리의 용감한 신랑들은 유부남이 되는 것이 못내 아쉬워, 총각으로서의 마지막 화려한 만찬을 위해 술파티에서 총각파티에 이르기까지 거창한 행사들이 한창이다.

딸 가진 부모들이 알면 이 얼마나 한심하고 분통터지는 일이 아니겠는가.

신부가 정해 놓은 몇가지 스케줄에 맞추어 신랑은 잠시 시간을 비운다. 양복 사이즈를 재고, 반지 치수를 맞추고, 나머지 웬만한 것들은—집 문제라든지, 신부의 예물 문제 등—신랑 어머님이 알아서 척척이다. 금쪽같은 내 아들 장가보내는 데 이 정도 쯤이야….

신랑은 자기 어머니가, 혹은 신부가 준비해 놓은 일정표에 모든 걸 맡겨놓고 식장에서 '신랑입장' 때만 폼나게 걸어 들어가는 게 전부는 아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생판 모르던 두 사람이 서로 만나 하나의 가정을 꾸미기까지 필요한 제반 사항들에 대해 꼼꼼히 살피고 체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예산은 얼마나 필요한지, 사소한 준비물은 무엇인지, 상대 집안과 조화는 얼마나 이루고 있는지 등 등.

차근차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자.

결혼식장 선정. 처가댁의 하객수와 신랑측의 하객수를 잘 파악하여 위치, 시간, 예산 등을 고려해 양가 부모의 합의하에 결정한다. 흔히 부모님들끼리 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 양측의 의견이 달라 갈등이 생기기도 한다. 그 중요한 징검다리 역할이 바로 신랑의 몫!

이것은 예물과 혼수준비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만약 신랑측이 요구하는 수준에 비해 신부측이 준비할 여력이 미처 안된다고 가정하자. 이 때 신랑은 수퍼맨처럼 멋~있게 나타나 죽어도 쬐끄만 예물을 고집하라.

남자가 다이아는 웬 다이아? 18K 반지가 훨씬 좋아요. 외제 시계? 싫어 싫어 내 친구들 다 국산인데!!

평소 부모님께 신뢰받던 친구들, 이런 기회에 이름 좀 팔아 형식적인 예물에 대한 편견을 없애자. 신랑이 그 집에서 나쁜놈, 불효자가 될지언정 신부에게 부담주는 일은 죽어도 하지 말라. 한평생 살아 갈 나만의 신부에게 어찌 이 아니 듬직한 신랑인가.

결혼 당일만을 위해 쓰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

『일생에 오직 하루』라는 거창한 구호 아래 갖가지 과소비가 만연되기 일쑤이다. 거품을 빼자! 드레스도, 턱시도도, 아름다운 꽃장식도 세월이 지나면 모두가 촌티 팍팍 나는 하룻밤의 꿈인 것을.

다행히 시대의 상황에 걸맞게 절약형 결혼상품들이 많이 나와 있다. 신부와 함께 비싼 커피 마시며 아까운 시간을 죽이는 대신 알뜰살뜰 지혜가 듬뿍 담겨있는 정보지나 잡지를 활용해 보자. 진정 천원을 만원처럼 쓰는 다양한 방법들이 구비되어 있으니.

"나는 회사일 때문에 바쁘니 여자인 네가 알아서 해" 하는 남편이 요즘 세상에 아직도 존재할까? 둘이서 알콩달콩 상의해 가며 결혼준비 하는 일, 이것이야말로 일생에 단 한 번뿐인 소중한 경험인 것이다.

여자가 준비해야 할 살림살이도 신랑의 지혜가 발휘되어야 할 부분이다. 가전제품에서 가구, 사소한 집안 소품들에 이르기까지, 대형

아파트는 둘째치고 원룸형 오피스텔이라도 필요한 살림살이의 수는 실로 어마어마하다. 조그만 바늘에서부터 무거운 장롱에 이르기까지 그 수는 놀랄만 하지만, 사실 생활에는 꼭 필요한 것들이다.

친애하는 남성동지 여러분!

아름다운 새 신부를 얻었다고 해서 집안 살림마저 몽땅 새 것으로 바꿔야 할 필요가 과연 있을까? 큰 냉장고로 바꾸면서 의붓자식이 된 소형냉장고, 총각시절 내 방에서 다정한 친구가 되었던 오디오, 예쁜 신부를 더욱 아름답게 변신시켜 주던 화장대 등등등….

꼭 새로 사야 할 더블 침대나 몇가지의 가전제품을 제외하면 처녀, 총각 때 쓰던 물건들 중 재활용할 것이 무궁무진하게 많다.

결혼… 하면 빠질 수 없는 게 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내가 이걸 샀으니 너는 이걸 사고, 내가 저걸 받으니 네겐 저걸 주마 하는 고리타분 하고 답답한 사고방식은 과감히 깨뜨리자. 흔히들 관례' 라고 하는 것이, 집 장만은 남자가, 살림살이는 여자가, 몇세트에 몇캐럿, 기타 등등 기타 등등….

전세금이 모자라면 조금 작은 집으로 옮기자. 냉장고도 우리 집에서 들고 올 수 있다. 둘이 살면서 하나하나 살림이 늘어가는 재미, 어르신들의 잔소리가 아니라 안 해본 사람은 그 맛을 절대 모른다.

겉치레만 빵빵하다고 해서 잘산다는 보장은 하느님도 못한다. 아끼고 줄이면서 함께 모아가는 재미-그것이 부부로 맺어지는 출발점인 것이다.

구체적인 내역을 살펴보면, 결혼식 당일 날 비용은 상당히 유동적이다.

보통 50/50으로 내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 하객 수가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면 의논 하에 그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예쁜 웨딩 드레스는 신랑이 장만해 주는 것이 보통의 상식이다. 이 때에도 부모님의 도움보다는 평소에 조금씩만 저축해 둔다면 화려하고 멋진 드레스를 값싸게 렌트해 입을 수 있다. 신랑의 턱시도 역시 신부가 장만해 준다. 요즘에는 양복을 맞출 경우 무료로 렌트해 주는 곳이 많으니 참고하시길!

사진촬영비도 50/50으로 부담하나 이 역시 유동적일 수 있음을 강조하고 싶다.

함 받는 날 신랑 친구들에게 사례비를 주듯이 신부집에서 이바지 음식이 갈 때 약간의 사례금을 주는 것도 관례이다.

주방용품 중 칼이나 집안의 커튼같은 것은 신랑이 장만해 주는 경우도 많은데 이 역시 '법' 은 아니라는 사실.

서로에게 지갑을 선물할 땐 얼마의 돈을 넣는다든지, 신혼여행 가방은 여자가 준비하다든지 등등…, 구체적이고 다양한 여러 가지 의식들, 혼인을 성사함에 있어 정해진 예의와 도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크게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서로 의논하고 합의하여 해결책을 찾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

정해진 틀에 얽매이지 말고 나만의, 우리만의 새로운 틀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좋은 결혼을 한 남자에게는 날개가 주어지고, 좋지 않은 결혼을 한 남자에게는 수갑과 족쇄가 주어진다고 했다. 행복한 결혼이란, 약혼 때부터 죽을 때까지 결코 지루하지 않은 긴 대화와 같은 것이라고도 했다.

내가 선택한, 나를 선택한 그녀와 함께 솔직하고 진실한 대화를 통해서 인생에 새로운 날개를 달고 훨훨 날고 싶은 사나이의 꿈! 좀 더 현명하고, 좀 더 희생적인 정신으로 한 가정의 듬직한 가장으로서 나를 자리매김해 보는 건 어떨까…